

미국인 약 40% “바이든도 트럼프도 싫다”



▲ 조 바이든(왼쪽), 도널드 트럼프, 사진=shutterstock

4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을 ‘최악’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야후뉴스-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37%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이 국가에 ‘최악의 일’이라고 했고, 35%가량이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민주당원은 43%, 공화당원은 84%인데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비율은 민주당원 85%, 공화당원 25%였다.

2024년 예정된 선거가 2020년의 재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경우 유권자의 41%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3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계 무당층 약 30%가량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유권자 52%는 민주당 후보중 다른 사람이 나서길 원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지자 및 공화당계 무당층의 약 3분의 1가량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답했고 4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성별, 나이, 인종, 교육, 2020년 대선 투표자 등에 가중치를 둔 1,557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2.7% 수준이다.

얕아진 지갑에 “소고기 대신 닭고기”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 지갑이 얕아지면서 소고기보다 저렴한 닭고기가 인기를 끌고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CNN은 전날 미 최대 육류 가공 업체 타이슨푸드가 “닭고기 수요가 매우 강한 반면 고가의 소고기 수요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치솟는 물가에 부담이 덜한 닭고기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타이슨은 “육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료품점 운영기업 크로거도 쇼핑객들이 매장에서 소비하는 품목 수가 줄고 유명 브랜드 대신 저렴한 자체브랜드(PB) 제품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식품, 연료비 등 상승으로 물가가 고공행진하



고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9.1%를 기록했는데, 이는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욕타임스(NYT)도 뉴욕 시민들이 비싼 가격표를 보고 소비자가 충격을 받는 이른바 ‘스타커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뉴욕시 지역의 식품 가격 전년 대비 상승률은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9.1%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의대생 패트릭 던은 병원 근무가 있는 날에는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거나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식당이 비싼 비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공감하지만, 화는 난다.”고 말했다.

사진=shutterstock

노동생산성 2분기 연속 하락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2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국 노동부를 인용해 2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생산성이 1분기 대비 4.6%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0% 하락보다는 양호하지만, 1분기에 -7.4%로 74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데 이어 또 다시 떨어진 것이다.

생산량 대비 인건비를 나타내는 단위 노동 비용은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12.7% 오른 데 이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10.8%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비농업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이 각각 2.5% 하락, 9.5% 상승했다. 시간당 임금은 전분기 대비 5.7%, 전년 동기 대비 6.7% 각각 올랐다.



기업들의 6월 구인건수는 전월보다 60만5천 건(5.4%) 감소했지만, 구인난이 지속하고 있다.

생산성이 올라가야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생산성 하락 속에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 저하를 감내하거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한 상황에서 이윤 저하를 감내하거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한편 채용사이트 잡리스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노동력이 부족하던 시기 퇴사한 사람 중 26%는 퇴사를 후회하고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구한 응답자 가운데 42%는 새 일자리가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shutterstock

날말퍼즐 정답

1	패	색			2	요	총	3	지			
	러		4	잡	5	도	리		6	불	7	길
8	디	9	카			탄						잡
		10	오	합		지	즐		11	누		이
12	파	스				고		13	리	더		
	라					14	끼		15	기	16	준
17	오	18	수		19	허	니	문				공
		20	매	운	탕				21	배		식

숨은그림찾기 정답

